



우리 여성과 남성이  
함께 진정하고도  
**동등한 동반자로**  
일할 때, 우리는  
구주께서 가르치신  
단합을 누릴 것입니다.

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
2022년 10월 연차 대회

청소년의 힘을 위하여